

MiK_TE_X 2.4 용 dvipdfmx 테스트

아무개

2006년 12월 20일

차례

차례	3
1. 설치하기	5
1.1 MiKTeX 설치하기	5
1.1.1 들어가기	5
1.1.2 설치 순서	5
1.1.3 주의사항	6
1.1.4 감사의 말	6
1.2 texmf-dhucs 설치	6
2. 소년	14
2.1 고개 마루턱	14
3. 그래픽 테스트	17
3.1 새로운 dvipdfmx에서 includegraphics의 trim이 잘 작동할까	17
4. yap의 포스트스크립트	19
5. 여긴 몇 번째 장이더라?	21
찾아보기	23

1.1 MiKTeX 설치하기

1.1.1 들어가기

도은이아빠 wrote:¹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MiKTeX-KTUG 2.4는 아니지만, MiKTeX 2.4를 위한 DVIPDFMx가 나왔습니다. MiKTeX 배포본의 DVIPDFMx는 치명적인 버그가 있어서 한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어제와 오늘 조진환 박사께서 마침내 버그 수정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 MiKTeX-KTUG 2.3을 권해오던 노선을 포기하고, MiKTeX-2.4에 HLaTeX과 DVIPDFMx를 설치하는 방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VIPDFMx는 새로 패치 바이너리가 올라왔습니다만, 아직 배포본 MiKTeX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배포본에도 반영된다면 별도로 바이너리를 설치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배포본에 반영될 때까지 아래 패치 업그레이드 지침을 제시합니다.

- Omega/Lambda로 한글 TrueType을 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ttf2tfm, ttf2pk 바이너리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 수고해주신 조진환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MiKTeX-KTUG 2.3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이제 MiKTeX 2.4 베이스로 이행하셔도 될 것으로 압니다.

상세한 설치가이드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주시고, 다른 분들이 더 자세히 보충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1.1.2 설치 순서

1. 일반적이고 평범한 방법으로 MiKTeX 2.4를 설치합니다. small 정도로 설치해도 나중에 필요한 패키지는 자동 업그레이드되니까 큰 걱정이 없습니다.
2. 한글 사용을 위해서 HLaTeX을 설치합니다. cvs 설치나, <http://faq.ktug.or.kr/mywiki/HLaTeX>에 있는 설치파일 묶음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CTAN에 있는 HLaTeX과 KTUG의 HLaTeX의 파일구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풀어진다면 mo를 실행하여 이 TEXMF tree를 localtexmf 이후 순서로 등록합니다.

¹도은이아빠님 글 참조

6 1. 설치하기

이전에 MiKTeX-KTUG 2.3을 잘 쓰시던 분들은 C:\texmf 디렉토리를 지우지 말고 적당한 이름으로 바꿔둔 다음, MiKTeX 2.4 설치 후에 이 texmf tree를 새로운 Root로 (마지막에) 등록하면 HLaTeX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MiKTeX-KTUG 2.3을 먼저 설치하고 다시 MiKTeX 2.4를 덧씌워 설치하지는 마십시오.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자원낭비입니다. MiKTeX-KTUG 2.3 트리에서 필요한 것은 hlatex 관련 파일들 뿐이므로, 다른 것들(실행파일 등)은 지워버려도 상관없습니다.

3. DVIPDFMx, ttf2tfm, ttf2pk 등을 업그레이드합니다. **MiKTeX-2.4-KTUG-patch**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MiKTeX이 설치된 위치(예를 들면 C:\texmf)로 옮겨두고, 현재 폴더에서 압축 풀기 합니다. 파일을 덮어쓸 것인가 물어오는데, 미련없이 덮어쓰도록 합니다.

4. c:\texmf\web2c\updmap.cfg를 열어서 다음 행을 추가합니다.

```
# uhc-down
Map uhc-down.map
```

5. 명령행을 열고 `initexmf -u`와 `initexmf --mkmaps`를 차례로 실행합니다.

1.1.3 주의사항

끝입니다.

note1. UHC는 어떤 경우든 `updmap.cfg` 설정만으로 잘 쓸 수 있습니다. UHC로 만족하신다면 위에 언급한 모든 문제들이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note2. `ttf2tfm`, `ttf2pk`는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실행파일들은 사실상 한글 사용자에게만 소용이 닿는 것이어서 MiKTeX 공식 배포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1.1.4 감사의 말

조진환 박사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1.2 texmf-dhucs 설치

바탕, 돋움, 그래픽, 타자만 넣어서 dhucs 최소 설치팩을 만들어보았습니다. MiKTeX user의 경우, MiKTeX 2.4만을 설치한 상태에서, 당연히 HLaTeX이고 뭐고 전혀 설치하지 않고 ucs 패키지는 자동 다운로드되도록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패키지만으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TTF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전에 박원규 님께서 KTUG이 TTF를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설치 팩이 정식으로 마련된다면 TTF를 포함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한 설치 방법을 요약합니다.

- (1) `texmf-dhucs`를 풀어서 `ROOT`로 등록하고 Refresh FNDB.
- (2) `makeindex-dhucs.exe`를 실행 가능한 폴더로 옮깁니다.
- (3) `localtexmf/dvipdfm/config/dvipdfmx.cfg`를 수정
`f cid-unttf.map`
- (4) `localtexmf/ttf2pk/config/ttf2pk.cfg`를 수정
`map +unttf2pk.map`
- (5) `texmf-dhucs/pdftex/unttf/unttf-pdftex.map`을 `localtexmf/pdftex/config/psfonts.map`과 합침. 모두 C: 드라이브 아래에 설치되었다고 할 때, `c:\localtexmf\pdftex\config` 디렉토리에서,

```
#> copy pdftex.dl14.map + c:\texmf-dhucs\pdftex\unttf\unttf-pdftex.map psfonts.map
```

이 명령을 실행한다.²

여기까지만 하면 `dhucs`를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절차가 초보자에게 까다롭게 느껴지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²주의: 이 작업은 자동 패키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거나 `initexmf --mkmaps`를 실행한 이후에는 반드시 해주어야 함. PDF_LA_TE_X은 beamer 패키지 등을 사용할 때 필요함.

윤오영 지음

2.1 고개 마루턱

에 방석 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흥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¹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 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²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티수²⁹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뵈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웃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끔했다.³⁰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못소리로 짹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돛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¹陳外家: 아버지의 외가

²切戚: 동성동본이 아닌 가까운 친척. 각주의 줄간격이 얼마나 벌어지는가를 보기 위해 일부러 각주 내용을 늘렸습니다. 이러면 두 줄 이상 늘어나겠지요? 이왕이면 세 줄까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²⁹서로 사귀는 처지, 분수

³⁰깔맞하다 : 조출하고 말끔하다.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수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끗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3.1 새로운 dvipdfmx에서 includegraphics의 trim이 잘 작동할까

얼마전 이호재님께서 발견하신 문제¹ 참조.

dviout에서 보면 `\includegraphics` 명령의 `trim` 옵션이 제대로 작동해서 잘 보여주는데 20031110 dvipdfmx에서는 먹지를 않습니다. eps 그림 대신 pdf 그림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dvipdfmx의 버그인가요?

수십 개의 그림을 일일이 올려내기가 귀찮아서 이 방법을 시도해본 것인데, 아주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안 되니까 좀 아쉽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림 3.1을 참조하세요.

¹<http://www.ktug.or.kr/jsboard/read.php?table=operate&no=13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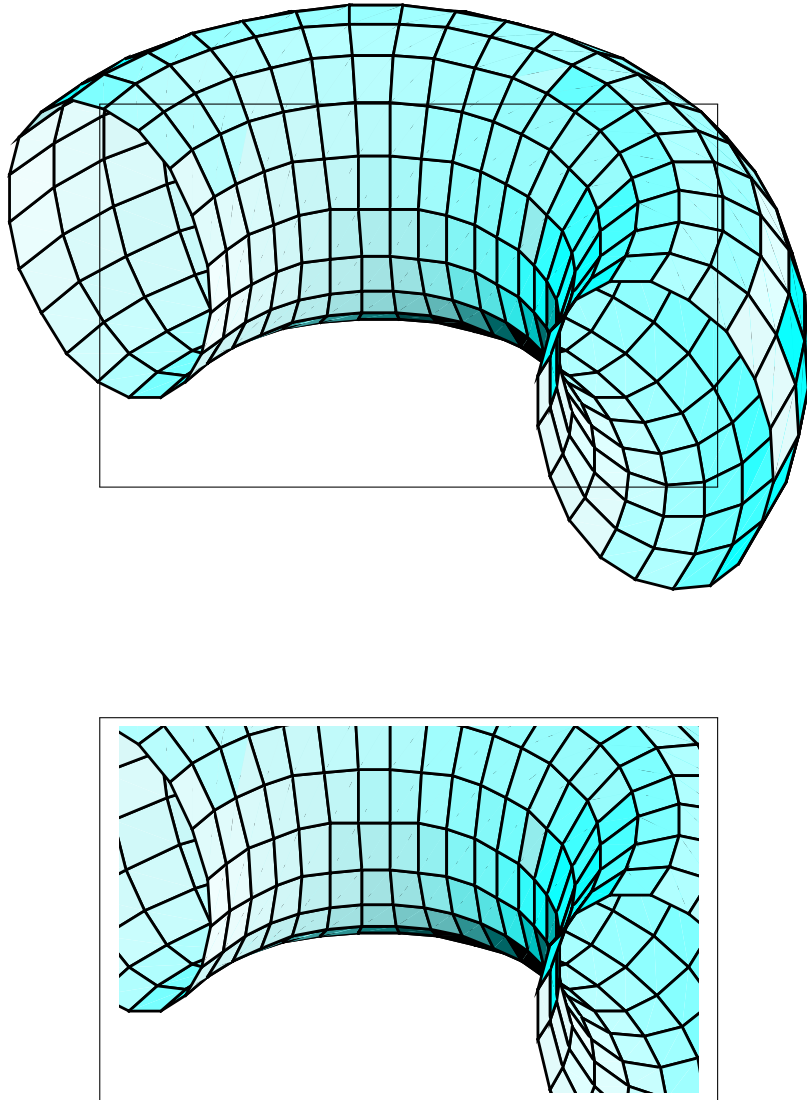


그림 3.1: 새로 바뀐 dvipdfmx에서는, 상하좌우에 trim값을 주고 clip을 설정함에 따라... 그림을 자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미 cvs에서는 해결되었는데 MiKTeX 용에서만 업데이트가 늦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네요.

4

yap의 포스트스크립트

yap의 포스트스크립트 해석기가 고스트스크립트¹에서 그림과 같이, MiKTeX에서 새로 제공하는 실행파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 dvi에서는 그래픽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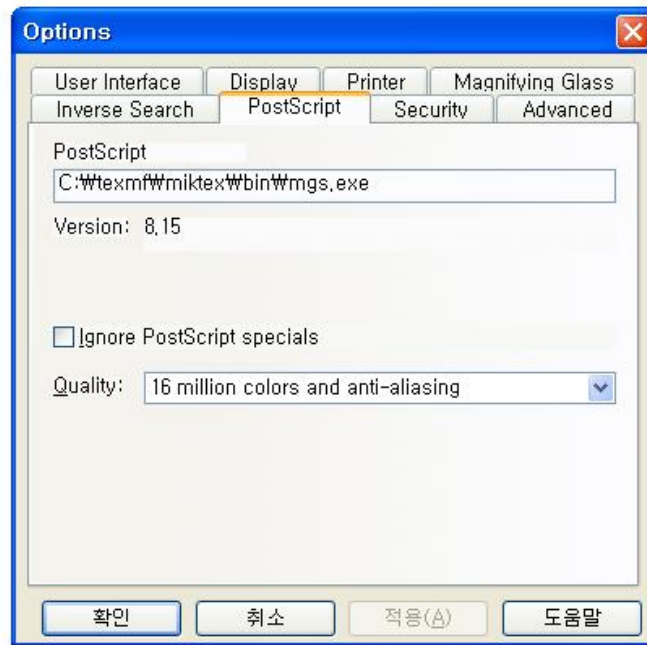


그림 4.1: yap의 postscript 설정

¹윈도의 경우 gswin32c.exe

5

여긴 몇 번째 장이더라?

이 문서는 MiKTeX 2.4, dhucs, 은글꼴, 새로 바뀐 dvipdfmx 등으로 컴파일되었습니다.

찾아보기

【 D 】		오이소박이 14
dhucs 최소 설치팩 6		음식 습씨 14
【 F 】		【 ㅈ 】
FILE		적삼 14, 15
updmap.cfg 6		【 ㅊ 】
【 P 】		치녀 14
PACKAGE		초가집 14
dhucs 7, 21		춘수 14
HLaTeX 5, 6		침선 14
【 ㄱ 】		【 ㅍ 】
건넌방 14		포스트스크립트 19
【 ㄴ 】		【 ㅎ 】
너스레 15		호박눈썹나물 14
노파 15		
【 ㄷ 】		
닭국 14		
뚝자리 14		
【 ㄹ 】		
밀국수 14		
【 ㅂ 】		
방석 소나무 14		
【 ㅅ 】		
사랑방 14		
소녀 14, 15		
【 ㅇ 】		
여름 방학 14		